

시연(施連) 칼럼

한림원 명예 회원이신 권택진權宅鎭 박사의 귀향



권오신
칼럼니스트, 안동권씨좌요공파중회장

자는 우찬(祐贊), 호는 의봉(毅奉).
1936년 안동권씨(安東權氏) 좌요공파(佐尹公派) 죽림공 후손들의 집성촌인 경주시(慶州市) 강동면(江東面)에서 태어나 초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고향을 떠났다. 일본에서 5년, 미국에서 2년, 유럽에서 2년, 그리고 서울과 대구에서 머물렀던 73년간의 타향살이를 청산하고 지난해 5월에 귀향했다.
전국에 100만 족친이 살고 있지만 한림원 회원은 성균관대학교(成均館大學校)에서 학장을 지낸 권택진(權宅鎭) 박사(85, 좌요공파佐尹公派 37세世)가 유일하다. 경주시 강동면 죽림공(竹林公, 휘諱 산해山海, 단종의 이모부) 후손들의 세거지인 국당(菊堂)에서 일제(日帝)의 수탈행위가 극에 달했던 1936년 현우공(賢佑公, 휘諱 혁택赫澤)과 안동손씨(安東孫氏) 사이에서 7남매 중 맏아들로 태어났다.
권택진 박사는 경주 강동면 왕신 초등학교 1회 졸업생, 전교 1등을 놓친 적이 없어 경주향에서 천재로 소문이 났다.
졸업을 앞두고 고향 국당(菊堂)리를 떠나 85살에 돌아왔으니 73년 만에 귀향했다. 1949년 왕신초등학교를 졸업한 권박사는 대구에서 중고등학교를 마치고 경북대학교에서 수학을 전공했었다. 다시 영남대학교 3학년에 편입, 건축학을 공부했다.
영남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1967년부터 모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 1971년 국비(國費)유학생으로 일본 동경대학(東京大學)에서 박사과정을 밟았다. 연수 2년을 끝내고 귀국하려는 데 동경대(東京大) 스승이 2년을 더 공부할 것을 권유받고 3년 만에 박사과정을 끝냈다.
동경대에서 3년 만에 어렵기로 이름난 공학박사(工學博士) 학위를 받았다.
지금도 5년 이상 걸리는 과정을 3년 만에 받아서 당시 한국과 일본 학계를 깜짝 놀라게 했으며 세계적 건축구조(建築構造)학자로 들어서는 계기가 됐다.
박사학위(博士學位)를 받고 국내에 들어오던 날 김포 공항(空港)엔 서울대학교 총장을 뺀 유명대학 총장들이 마중을 나왔을 정도로 학계의 인정을 받은 신진 학자가 됐다.
귀국 후 모교에서 잠시 재직을 하다 계명 대학교로 옮긴 3년째 되던 해 사표를 던지고 성균관대학교(成均館大學校)에 초빙돼 서울 생활로 이어졌다.
당시 한국 등 세계 각국에선 철강산업(鐵鋼産業)의 발달로 대형 건축물이 늘어나는 시기여서 권택진 박사를 필요로 하는 현장이 너무 많았다.

2002년 서울 올림픽 댄 국내에 10개 경기장, 일본에 10개 경기장이 지어졌다. 한 곳을 뺀 제주 올산 대구 등 9개 경기장을 방문, 고공건축물의 기술상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자문을 했다. 9개 경기장 건물의 지붕을 타지 않는 곳이 없었다고 한다.
이처럼 국내에서 지어진 대형 철 구조물(構造物) 건축(建築)현장과 교량, 심지어 지진(地震)이 난 현장에도 초빙이 되어서 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해 자문을 맡았던 최고 권위자였다.
해외에서도 그의 기술력과 판단력이 크게 쓰여 나라를 빛낸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 일본이 올림픽을 동경(東京)에서 열 때 동경 주경기장(主競技場) 구조물에 대한 자문을, 중국 북경에 가서도 자문을 했다. 필요한 현장엔 언제나 달려갔다.
성균관대학교(成均館大學校) 공대학장을 지낼 시기 한림원(翰林院) 회원이 됐다.
현재도 명예(名譽)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그의 제자는 전여 명예 이른다. 7년 전(2014) IASS(세계공간건축기술학회) 회원으로 한국인(韓國人)으로서는 처음으로 등재(登榜)됐다.
독실한 가톨릭 신자다. 프란시스코 교황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공항 영접 대열 맨 앞줄을 지켰던 가톨릭 국민대표의 한 사람으로 선정되었을 만큼 내외분의 신앙심이 독실하다.
지난해 5월, 73년 만에 귀향을 결심, 선대(先代)가 살았던 경주시 강동면 왕신리 옛집에서 건축학 교수직을 물려받은 맏아들 내외와 보기 드물게 한집에서 살고 있다. 살림하는 공간이나 부엌은 따로 갖고 서재도 따로 두어서 서로의 생활을 침범하지 않는다고 한다.
금녕김씨(金寧金氏)와 결혼, 아들 둘 딸 둘과 두 손자를 둔 권택진 박사(37세)는 단종사화 때 삼촌(사정공묘正公, 휘諱 수해壽海 죽림공竹林公의 제弟)의 유배지에서 성장한 입향조 판관공(判官公, 휘諱 철손哲孫)이 16대조, 임란 의병장 구사재(九思齋, 휘諱 복시復始)공이 12대조가 된다.
부친 현우공(賢佑公, 휘諱 혁택赫澤)은 당대 명필(名筆)이다.
경주 운곡서원(雲谷書院)에 걸린 현판(現額)은 어린 주먹 크기의 대붓으로 일필휘지(一筆揮之), 마치 한 마리 용이 꿈틀거리는 듯 글 획마다 힘이 뻗치고 글 선의 조화가 아름다워서 지금도 공의 글을 보고 배우려는 전국의 서예인(書藝人)들이 경주를 찾으면 반드시 운곡서원에 들러 글을 살피고 돌아가는 필수 코스이다.
위선(僞先)정신도 강하다.
安東 능동재사 문화재 등록 지원 및 경주 운곡서원(雲谷書院) 유언정(경상북도 문화재자료 345호)을 비롯 단계서당 등 서원과 재사 정자 등 고건물이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했다.
지금도 운곡서원 향사 등 종종 행사에 빠지는 일이 없다. 낙향 생활을 하면서도 시간을 아껴 쓰는 셈. 형산자락을 간 낡은 옛집에서 선대인의 유집(遺集) 정리와 자신의 논문정리로 바쁘게 보내는 영원한 석학이어서 더 아름답게 보였다.

권광택 조이바이오 대표, 식물성장제 ‘씨오-팜’ ‘찐한’ 효과 입증



조이바이오㈜(대표 권광택, 대통령 부회장)에서는 나노실리카(Nano-Silica) 및 생명공학 기술을 이용하여 친환경 바이오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식물 성장에 뛰어난 효능을 입증한 씨오-팜은 조이바이오의 대표적인 바이오제품이다. 씨오-팜은 충북 청주 오창3산업단지에 소재한 친환경 농농자재 전문회사인 조이바이오㈜가 수용성 규산염을 주원료로 하며 광합성 작용을 촉진시키는 식물성장제이다. 이 제품은 토양개량, 미질향상과 증수효과, 뿌리 활착과 발근력 증대, 영향균형개선 및 식물 노화 억제 등의 효과가 있다.



조이바이오(주)가 드론으로 들녘에 식물성장제 '씨오-팜'을 살포하고 있는 장면.

최근 조이바이오에서 생산하는 식물성장제 '씨오-팜'이 벼 생육 촉진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기사가 농민신문을 비롯해 영농자재신문과 충청타임즈(http://www.cctimes.kr, 12월 7일자) 등에 크게 보도되고 있다.

농민신문과 영농자재신문 및 충청타임즈에 의하면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과 오송읍의 옥산농협 조합원의 논 760만3305㎡(230만평)를 대상으로 식물성장제인 '씨오-팜'을 사용한 결과 재현율(80%이상)이 지난해보다 지역별로 15.5~26.8%까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재현율은 양계를 제거한 현미상태로 추곡수매가격 등급을 책정하는 품질기준이다. 권광택 대표는 "긴 장마 탓에 올해 청주지역 벼농가들의 재현율이 지난해보다 1~2% 떨어졌지만 씨오-팜을 사용한 옥산과 오송의 재현율은 크게 올라 식물성장 효능이 뛰어나다는 것이 입증됐다"고 밝혔다. 또한 권광택 대표는 "25년의 규산염 생산 노하우를 갖고 있다"면서 "안전한 농축산물의 생산을 도와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편집국장 권행완

제주도종친회 현판식 개최

안동권씨 제주도종친회는 2020년 11월 28일 제주도 노형로에 위치한 오대종합상사(회장 권인창)에서 안동권씨 제주도종친회 관인창 회장을 비롯하여 권대성 사무국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권씨 제주도종친회 현판식을 가졌다.



권인창 회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권대성 사무국장(맨 왼쪽) 등 회원 여러분.

처마 밑에 방치된 안동권씨 효부의 정려문

안동권씨는 세보에 성균관 생원 이성규(1684.2.1.~1762.5.28.)의 부인으로 1783년에 정려문이 내려졌다. 그녀는 부모님이 걱정하지 않게 늘 안부를 전하면서 따뜻한 음식으로 지극 정성 돌봐 드렸다고 한다. 어느날 암행어사가 마을을 지나면서 그의 효행을 보고 감동을 받아 여러 차례 나라에 알렸고 효부라는 것이 인정받아 살아있는 동안에 세금을 면제해 주었다고 전해진다.

현재 효부정려문은 화성시 봉담읍 호련2길(상기리) 110-14 문중으로 알려진 가옥 처마 밑에 초라하게 서 있다. 전주이씨 안양공파 문중에서도 향토문화재 등으로 지정받아 보존하려는 노력이 있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아 현재 처마 밑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바로 옆에는 1982년 당시 293년 된 은행나무가 보호수로 지정돼 있다.

권오철 기자



정부, 권태강 고문 등 6·25 참전유공자에게 70주년 감사 메달 수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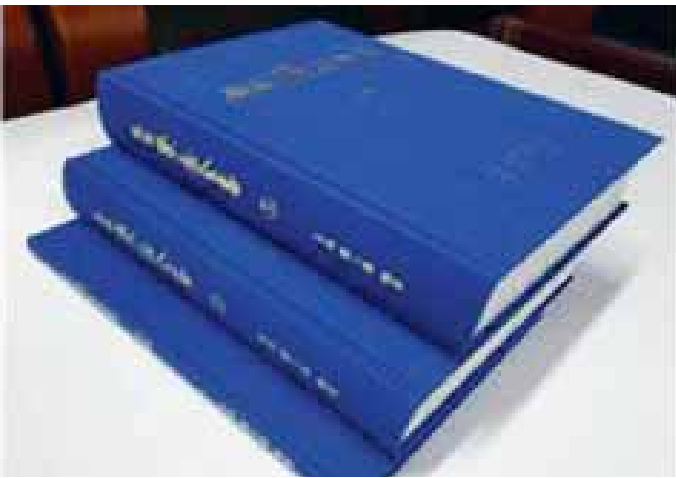
권태강 고문은 1950년 18살에 6·25전쟁에 참전했다. 2020년은 6·25전쟁 70주년이다. 정부는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권태강 고문 등 6·25전쟁 참전유공자들에게 감사 메달을 수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70년 전 유공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킨 조국 대한민국이 경제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으니 유공자들은 우리 국민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나는 불멸의 영웅으로 기억될 것이라는 존경의 마음을 담은 편지와 함께 감사 메달을 보냈다. 코로나로 인해 수여식은 열리지 않았다.

편집국장 권행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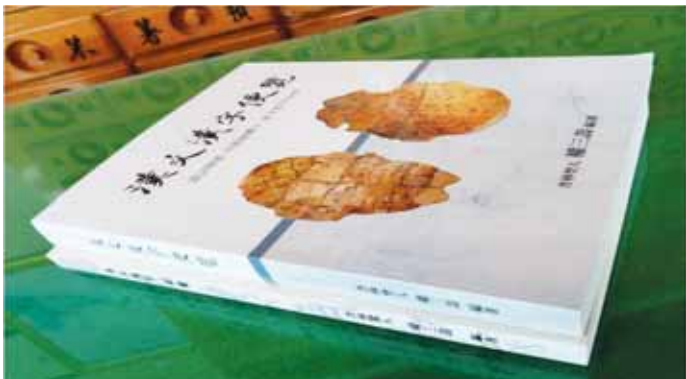
校註 景岳全書 출간!

杏林楚人 螢雪寒苦20星霜에 완성한 金字塔 醫藥史上 가장 精確한 <景岳全書> 64권 출간!



全書의 該博한 내용으로 활용성이 우수하며 便覽性이 뛰어난 不朽의 決定版!!
漢醫學 研究家에게는 必須 指針書로서
韓醫學 入門者에게는 必用 教科書로서 大寶典!!
原典 精粹의 광범위한 傳授를 위한 파격적 보급 특가
最高級洋裝 上·下·附錄 3冊 全帙(국배판2272면) 정가: 180,000원
懸賞金: <景岳全書>原文(100萬字)중 校訂 一字當 10,000원 지급

<漢文漢字便覽>
각종 漢文原書 讀解에 필수 참고서



- 虛詞精解 追從不許 勿驚 6천2백여 題字 收載 各種 漢韓大辭典 中韓辭典은 물론 우리의 口語에서도 採錄
- 中國簡體字의 完壁한 가나다順, 劃順 總整理
- 漢字의 製字原理 부수글자의 어원 감금문자

정가 (46배판 422면) : 38,000원
《漢文漢字便覽》은 《景岳全書》는 물론 모든 漢文原書를 解讀 할 수 있는 虛詞를 방대하게 收載함으로써 原文 理解의 길잡이이고 열심이기 때문에 便宜上 《校註景岳全書》와 함께 공급합니다.
◇합계 218,000원

장계출판사 신간안내

東醫驗方續纂

大韓韓藥協會 學術委員會編
大韓韓藥協會 韓藥業士 畢生의 經驗祕方集
消滅 死藏위기의 1600여 祕方들을 採錄
최고급 양장 46배판 848쪽
정가 400,000원 → 70,000원·잔여 200권 선착순

景信醫方

景信 李忠憲 原作 長溪 權三壽 編著
辨證奇聞과 石室祕錄의 眞髓를 總整理
千古絶奇의 變證에 正答을 提示한 奇書
802要方을 證治別로 分類한 臨床便覽書
46배판 313쪽 정가 30,000원

醫窓匯編 近刊

杏林楚人 權三壽 編著
東洋醫籍의 解題와 序文 跋文의 完譯
古籍의 理解와 書誌學 研究의 筈蹄
기타 다수의 長溪逸稿 등 收載
46배판 473쪽 정가 30,000원